칠레의 신좌파

노암 티텔만

칠레대학교 공공시스템 연구소 겸임연구원

원제와 출처: Noam Titelman, “La nueva izquierda chilena”, *Nueva Sociedad*, No. 281, mayo–junio de 2019, pp. 119–128.

핵심어: 민주주의, 우파, 좌파, 국민주권,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와 선거

여러 면에서 칠레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진보적 세계를 위한 모범이었다. 평균 가계수입은 10년 만에 두 배로 뛰었고, 1990년에서 2013년 사이, 특히 2000년 이후, 빈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재분배 정책으로 인해 80% 감소했다. OECD에서 여전히 최고 수준인 소득 불평등조차도 특히 가장 빈곤한 계층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 천천히 감소하고 있다.[1)]

이러한 결과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에 대한 반대를 결집시킨 중도좌파

연합정부, 콘세르타시온 하에서 만들어졌다. 콘세르타시온은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그리고 열 개 이상의 군소 세력들을 포함했다. 1990년대 피노체트가 공개적 토론에서 전면적으로 논의되면서, 콘세르타시온의 정치적 성공의 상당 부분은 군대의 부활을 억제하는 능력에 의해 가늠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합의의 정치"로 알려졌으며, 입법적,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콘세르타시온과 우파 야당 사이의 공통분모로 간주되는 것에서만 진전을 이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1997년 칠레의 유명한 사회학자 토마스 모울리안은 그의 책 『칠레의 현실: 신화의 해부』를 통해 콘세르타시온 프로젝트의 기초를 흔들었다.[2] 1989년 독재 정권을 종식시킨 국민투표의 승리와 부인할 수 없는 경제적 성공으로 인해, 독재로부터 계승된 경제사회적 모델은 부각되지 않았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전환의 신화는 그 첫 균열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칠레 정치에서 신좌파의 출현을 역사적인 중도좌파 연합의 긴 소모적인 역사의 틀에서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콘세르타시온과 신좌파의 구성원들이 인지하기 어렵겠지만, 부분적으로 이러한 신좌파의 출현은 콘세르타시온의 경제적, 정치적 성과와 실패의 맥락에서만 이해된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칠레의 놀라운 경제 성장은 국가의 생산적, 사회적 구조에 변화를 야기했으며, 또한 신좌파의 출현을 부분적으로 기여했다. 다른 한편으로, 신좌파와 그 정치적 연합의 예상치 못한 성장은 중도좌파의 또 한 번의 성공적인 선거에 의해 방어된 주요 견해들에 대한 부인을 의미한다. 칠레의 신좌파는 콘세르타시온의 업적과 실패에 대한 기념비다.

1) Osvaldo Larrañaga y María Eugenia Rodríguez: 《Desigualdad de ingresos y pobreza en Chile 1990 a 2013》, documento de trabajo, pnud Chile, 12/2014.

2) LOM Ediciones, Santiago de Chile, 1997.

신좌파는 적어도 두 개의 흐름의 합류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는 인문주의당이나 생태주의당과 같이 콘세르타시온의 좌에 위치한 정치적 대안(종종 원외좌파라고 불리던)을 만들어 내고자한 사람들의 일부이고, 다른 하나는 2011년 학생운동에서 나온 새로운 운동들이다. 후자는 독재 종식 이후 가장 큰 결집의 열기 속에서 등장했는데, 새로운 정치적 연대, 광역전선(Frente Amplio)을 형성하는 과정을 이끌며 정치적 균형을 흔들었다.

학생의 결집과 누에바 마요리아

칠레의 교육 모델은 독재 기간 동안 근본적으로 1981년의 법 개혁을 통해 확립되었다. 전체적인 경제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하위 시스템에서 능력과 기업가정신이 거의 원칙이 되었다. 이 시스템은 1990년과 2011년 사이에 고등교육의 보급률이 16%에서 46%로 크게 늘렸다.[3]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2011년의 강력한 결집을 설명하는 이유 중 하나다. 고등교육 시스템의 모순에는 칠레 인구의 전례 없이 높은 비율이 연관되어 있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육 시스템의 손에 그들의 신뢰와 꿈을 두어왔지만, 실상은 기대했던 것과 크게 거리가 멀었다. 고등교육에 대한 교육비 감소와 교육 효용성 상승에 대한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다. 실제로 칠레는 1인당 소득에 비해 교육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수업료는 계속 상승했다. 예를 들어, 1997년과 2009년 사이에만 수업료의 실질 상승률이 60%에 이르렀다.[4] 하지만 가장 실패한 측면은 교육의 질이다. 이러한 상황은

3) Malone Gabor y Jordan Bazak: 《The Price of Free Education》, Council on Hemispheric Affairs, 12/10/2016.

4) Patricio Meller: Universitarios, *¡el problema no es el lucro, es el mercado!,* Uqbar Editores, Santiago de Chile, 2011.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기 보다는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따른 차이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엘리트층을 유지하는 고등교육 시스템을 형성했다.[5]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 졸업생의 39%가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투자 수익을 나타냈다. 다시 말해, 5명의 졸업생 중 2명은 공부를 해서 더 빈곤해진 것이다.[6]

칠레 교육시스템의 모순은 당시까지 포스트독재 전환의 합의에서 금기 주제인 경제 모델과 함께 일반화된 불안으로 구체화했다. 따라서 2009년~2010년 동안 시위의 약 19%가 정치-구조적 변화를 요구했으며, 2011년과 2012년 사이 이러한 유형의 요구는 45%로 증가했다.[7] 콘세르타시온이 국가를 이끄는 것을 가능케 한 기둥들의 소모는 엘리트에 대한 커져가는 불신으로 명확하게 나타났다. 칠레의 여론조사 기관인 모리(CERC-MORI)에 따르면, 신뢰 수준의 하락은 정치, 경제, 문화를 막론하고 실질적으로 모든 엘리트에 영향을 미친다.[8] 부분적으로 이러한 불신은 인구 다수의 요구와 합의의 정치가 허용하는 행동의 범주 사이의 커져가는 갈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UNDP의 자료가 이를 반증하는데, 시민의 70% 이상이 국가가 의료, 교육, 연금을 담당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나타났다. 반면, 엘리트는 30% 미만의 소수만이 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9]

2011년 사회적 격동은 칠레 정치를 흔들었다.[10] 일면으로는, 학생 운동의 세

5) Carlos Rodríguez Garcés y Víctor Castillo Riquelme: 취mpleabilidad, ingresos y brechas: un análisis comparativo de los procesos de inserción laboral en Chile en Orientación y Sociedad vol. 14, 2014, p. 3.

6) Sergio Urzúa: 《La rentabilidad de la educación superior en Chile. Revisión de las bases de 30 años de políticas públicas》 en *Estudios Públicos* No 125, verano de 2012.

7) pnud: *Desarrollo humano en Chile. Los tiempos de la politización,* pnud, Santiago de Chile, 2015.

8) cerc-mori: B*arómetro de la política,* 3/2015.

9) pnud: ob. cit.

10) 다음 참조. N. Titelman: 《¿Qué pasó el 2011?: el derrumbe de la legitimidad de la élite》 en *El Mostrador,* 1/7/2015.

명의 핵심 지도자인 카밀라 바예효, 조지오 잭슨, 가브리엘 보릭은 국가적 영향력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가 되었다. 이 세 사람은 2014년에 국회의원이 되었고, 독재 정권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새로운 세대의 연착을 강화했다. 다른 한편으로, 2011년의 사회적 결집의 영향은 매우 중대하여 콘세르타시온 본래의 구조를 바꾸었다. 정치적 국면이 바뀌었다는 인식 하에 주요 지도자들은 첫 20년 동안 달성한 것을 능가하는 큰 프로젝트로 다시 뭉쳤다. 그리하여 바예호가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던 공산당을 포함한 중도좌파연합 누에바 마요리아가 탄생했고, 미첼 바첼레트를 지도자로 내세웠다. 2014년 누에바 마요리아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권을 잡았으며, 상하원 모두에서 전례 없는 다수를 차지했다.

새 정부는 칠레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장벽을 없앴다. 교육 시스템의 중요한 변화 외에도 많은 다른 상징적 개혁을 단행했는데, 그 가운데 제한적이지만 낙태의 합법화, 동성 및 이성 커플의 민사적 동거 입법화, 대기업의 세금 혜택을 감소시키는 세금 개혁, 그리고 독재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이항적 선거 제도의 종료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처음부터 고질적인 정치적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얼마 지나지 않아 기독교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개혁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11] 이는 세금 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명확했다. 누에바 마요리아는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프로젝트의 승인에 대해 우파와 협상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1990년대의 합의의 정치의 재판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한 기독교민주당 상원의원의 "모든 사람이 부엌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그 실체를 드러냈다.[12] 누에바 마요리아 정부가 이룬 모든 성과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11) 《Ignacio Walker: El programa no es la Biblia ni una camisa de fuerza》 en *Cooperativa*.cl, 20/4/2014.

12) 《Andrés Zaldivar rechaza críticas al acuerdo tributario: 'No todo el mundo puede estar en la cocina'》en *The Clinic,* 15/7/2014.

정치를 넘어 논의의 범위가 개방되면서 그 연합은 깊은 내부의 차이를 드러내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광역전선의 탄생과 2017년 선거

2014년에 정권을 획득할 당시 누에바 마요리아는 2011년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인 카밀라 바예호를 연합정부에 포함하고 있었다. 다른 두 주요 지도자, 잭슨과 보릭은 합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잭슨 정당인 민주혁명은 교육개혁 프로젝트와 다른 일부 정부 프로그램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아마도 누에바 마요리아와 민주혁명 내에서는 이 중대한 협력이 더욱 실질적인 연합을 향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것은 누에바 마요리아에 대항하여 일어난 2011년 결집의 다른 지지자들과 민주혁명의 관계 사이에 냉각을 암시했다. 하지만 민주혁명과 연합정부 간의 동맹은 점점 더 실현성이 떨어졌다. 2016년 민주혁명과 다른 학생 운동들이 우호 관계를 맺으며 광역전선(Frente Amplio)라는 이름의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졌다. 광역전선은 FA는 원외 좌파 및 기타 운동과 정당들과 함께 이 첫 번째 핵심 동맹을 강화해 나갔으며, 결정적으로 발파라이소 시를 장악했다. 이 승리는 자율주의 당원이자 전학생 지도자인 호르헤 샤프에 의해 이루어졌다.

발파라이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으로 당선 가능성이 없다는 좌파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도록 도왔고, 다른 한편으로 샤프의 입후보 이후 광역전선이 조직된 방식이 이듬해 선거의 밑그림으로 작용했다. 샤프는 22.4%를 득표한 누에바 마요리아와 22.6%를 득표한 우파를 합한 것보다 많은 53.8%를 득표했다. 더욱이, 기독교민주당의 압력 하에서, 중도 쪽의 담론을 대체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정부 당국이 '포기 없는 현실주의' 전략이라고 일컬음)는 칠레 사회의 최

근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다. 샤프는 구 정치구조에 대항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동조했고, 따라서 그의 기본방침은 조직적 구조들의 1차원적 합을 능가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좌/우 이외에 엘리트/시민를 축으로 논의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 논의는 더 이상 전통적인 정치의 여러 세력들 간의 내부적 싸움 뿐 아니라 정치의 경계를 넓히는 시도를 다룰 것이다.

발파라이소에서의 승리는 주요한 전망들을 만들어냈으며, 원외 좌파, 새로운 학생좌파, 그리고 결집한 다수의 단체들의 연합을 진전시켰다. 그래서 2017년 초 광역전선이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 14개의 정당 및 단체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선거 예측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연합은 대통령 선거(전 누에바 마요리아 출신 후보에 겨우 2% 뒤진 결과)와 의회 선거(하원 20석과 상원 1석 수성)에서 인상적인 결과를 내며 강화되었다. 이러한 2017년 선거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독재가 끝난 후 처음으로 콘세르타시온을 탄생시킨 사회당/기독교민주당의 역사적인 축이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콘세르타시온은 어떤 이들은 살바도르 아옌데의 인민연합에서 실패한 경험으로 간주했던 좌파와 중도 사이의 긴장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리고 여기에 좌파가 실질적 사회주의의 실패를 느꼈고 노동계급에 대한 영향력을 잃었으며 소위 포스트물질주의 가치와 제3의 길이라는 이념적 변화를 경험한 80년대와 90년대의 세계적 맥락이 추가되었다. 콘세르타시온은 또한 칠레 사회의 특수한 이념적 구분, 즉 좌우파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인구가 가우스 함수의 종 모양 분포를 나타낸다는 점에 기초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적 중도 성향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중도에서 멀어질수록 지지는 줄어드는 것이었다. 이 논리에 따라, 기독교민주당은 독자노선을 개척하여, 공산당의 통합과 바첼레트 정부의 개혁 추진으로 인해 너무 좌로 향한 누에바 마요리아를 나오기로 결정

했다. 기독교민주당의 지도층은 자신들의 독자노선이 유동층인 중도파 유권자에게 호소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기독교민주단의 선거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 의회에서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고, 대통령 후보는 5위를 차지했다. 이념적 선호의 분배가 90년대의 전환 초기 현실과 비슷해질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결과는 상황이 변화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는 1993년과 2017년의 좌우 정치적 선호의 분포를 나타낸다.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적 성향에서 뚜렷한 하락이 나타났다. 반면, 어느 정치적 성향도 띄지 않은 사람들의 비중은 11.5%에서 48.6%로 증가했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관찰된 이 사실은 기독교민주당의 독자노선에 대한 시도를 다른 관점에서 보도록 해 준다. 결국, 긴 선거 주기에서 유권자들은 90년대의 정치 선호 행태로부터 멀어지지만,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동기가 유동층 잡기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발파라이소 시장 선거는 2017년 선거에서 확립

[표-1] 칠레: 좌우 정치적 정체성(1993-2017)

	1993	2017	차이
우파	13%	10.30%	-2.7
중도우파	13.10%	6.60%	-6.5
중도파	19.80%	11.30%	-8.5
중도좌파	23.20%	7.10%	-16.1
좌파	10.50%	8.30%	-2.2
독립(지지정당 없음)	1.90%	3.90%	2
부동층	11.50%	48.60%	37.1

주: 모름이나 무응답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응답의 총합이 100% 보다 작음.
출처: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studio nacional de opinión pública* No51, tercera serie, cep0081-v1, CEP, Santiago de Chile, 9-10/2017.

된 경향, 즉, 고전적인 좌우 분열의 틀에 넣기 힘든, 전통적인 두 블록과는 다른 투표의 중요한 이동에 대한 상징적인 사례인 듯하다. 칠레의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이 새로운 노선은 무엇일까?

전 세계에서 그리고 칠레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정치적 논쟁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산층의 확대로 명확해졌다. 기술 및 직업 훈련에 대한 새로운 접근 덕분에 노동계층의 자녀들이 빈곤 장벽을 극복했다. 칠레의 경우 독재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은 이러한 중산층을 정의한 두 가지로 규정될 것이다. 그 하나는 공동체 또는 집단 프로젝트로부터 먼 개인화한 행동 모델들을 초래한 소비이고, 다른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시민권과 사회권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는 민주화를 추구하는 힘이다. 칠레에서는 신자유주의 과정과 민주화가 함께 진행되어 상당수의 인구의 일상에 침투했다.[13] 이러한 상황은 전통적인 좌우 정치 행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두 개의 반대 입장을 등장시켰다. 첫 번째 입장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않고 이 새로운 중산층의 증가하는 요구에 대응할 방법을 찾는 것을 주된 새로운 도전 과제로 가진다. 분열되고 개인화된 이 새로운 계층은 덴마크 같은 복지국가에서 미국과 같은 세금 징수라는 본질적으로 모순된 요구할 위험이 있었다. 이 정치적 입장에서, 누에바 마요리아의 큰 실수는 자신들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의 일관된 의견을 대표한다고 믿은 2011년의 학생들에 지나치게 귀를 기울인 것이었다. 누에바 마요리아의 선거 패배와 우파의 승리는 이 잘못된 해석의 결과였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점은 새로운 중간 계층의 집단의식에 대한 모호함이다. 한편으로, 선거전에서 산발적으로 동질적이고 일관된 행동을 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구조적 여건들을 책임지는 데에 있어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다. 최근

13) 자세한 분석은 다음 참조. Carlos Peña: *Lo que el dinero sí puede comprar,* Taurus, Santiago de Chile, 2017.

칠레 선거에서 나타난 이런 모순은 다음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동일한 선거에서 놀랍게도 일어난 현 발전 모델의 심화를 추진한 우파 연합의 성공과 방향의 전환을 강하게 추진한 광역전선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중소득국가 함정"에 대한 두 번째 입장이 힘을 받는다.[14] 이 관점에서 볼 때, 칠레의 현 발전 단계에의 가장 큰 도전은 신흥 중산층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적 생산을 추구하게 된 엘리트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런 형태의 생산으로는 국가가 저소득에서 중소득으로는 성장할 수 있지만 고소득으로 나아가는 데는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의 주요 과제는 그 새로운 사회계층에게도 사회적 권리, 그리고 생산 모델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의와 효율성의 프로젝트다. 광역전선은 국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 비전을 구현할 수 있었다.

결론: 칠레 신좌파는 무엇인가?

선거 결과로 인해 광역전선은 악명을 얻기 시작했다. 이는 다른 정치 집단과 비교를 가져 왔다. 특히, 우루과이의 광역전선과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가 자주 언급된다. 포데모스 모델의 영향은, 광역전선이 좌우보다는 위아래의 분열에 호소하면서 중도파를 대신해서 판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개념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좌파의 선거 한계를 넘어서는 집단이 되려는 목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후자는 광역전선을 유일한 좌파 세력이 아니라 공통의 정치적 기질을 공유하는 여러 이념들에 열려있는 것으로 표명한 것에서 드러났는데, 이는 자유당처럼 진보적 중도로 규정된 그룹들에 운신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해주었

14) Daron Acemoglu y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Profile Books, Londres, 2012.

다. 하지만 광역전선의 담화는 또한 스페인의 벤치마킹 대상의 공격적인 특성을 버리고 정치적 계급주의에서 벗어나 다수에 호소하는 정부의 자질을 보여주고자 했다.[15)]

우루과이의 광역전선과의 동질성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칠레에서 광역전선이 형성되기 오래 전에, 민주혁명당은 이미 우루과이 사례를 모범 삼아 중기적인 도전 과제로 하나의 폭넓은 연합을 만들고자 제안했다.[16)] 우루과이 모델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이 눈에 띄었다. 첫째, 전통적인 좌파를 넘어 광범위한 연합을 구성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칠레의 경제 및 사회 모델과 비교해 분명한 진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우루과이 모델은 공산당에서 기독교민주당에 이르는 누에바 마요리아와 유사한 넓은 조직적 폭을 지니고 있지만, 특정 사회적 권리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칠레보다 국가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둘째, 누에바 마요리아 정부의 경험을 고려할 때 우루과이의 광역전선 모델의 근본적인 것은 아마도 정당을 넘나드는 광역전선의 정체성의 범위 내에서 그 연합이 정책 협약들의 수행을 보장하는 기능 방식이었다. 이는 다양성을 띤 연합을 하나로 묶을 지침이나 정책적 처분을 고려하게 했다.

다른 국제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칠레 광역전선의 초기 몇 년은 중요한 약점을 드러냈다. 형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정책 분야에는 해답보다 의문이 더 많았다. 이것은 많은 정치 집단들로 구성된 의회를 조율하는 어려움에서 더욱 악화되었다. 이 현상은 칠레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신좌파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하지만 칠레의 경우 이는 새로운 사회적 행위자의 출현

15) 반면, 포데모스에서는 최근 선거에서 좌우 축이 되돌아왔고 따라서 사람과 계급 사이의 분열에 대한 호소가 약화되었다.

16) 다음 참조. Nicolás Valenzuela y Carlos Figueroa: 《Mirando a Uruguay: la posibilidad de un Frente Amplio en Chile》 en *El Mostrador,* 14/3/2014.

에 대한 논의의 진원지인 것 같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칠레의 신좌파는 중요한 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좌파가 칠레를 위한 새로운 진보주의 시대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능력은 적어도 두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첫째, 국가가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정치적 갱신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과거 칠레에서 있었던 국민의 물질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음을 납득시켜야 한다. 둘째, 제도권에 들어섬에 따라, 신좌파는 사회운동들과의 관계를 버리지 않고 좌파 및 중도좌파와 함께 다수를 구성하기 위해 충분한 정치적 수행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두 가지 과제에서 모두 발파라이소 시는 의지와 수사를 실천에 옮기는 역량의 예로서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때때로 가장 혁신적인 행동은 지방 자치 단체가 제때에 쓰레기를 치우고 거리의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막스 베버가 말했듯이, 선거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기세로는 충분치 않다. 열정과 신중함과 동시에, 단단한 판을 천천히, 꾸준하게 뚫어가며 통치할 줄 알아야한다.

임태균 옮김